

# 야구장 철거 착수... 문화시설 건립

### 우범기 전주시장, 사업 추진사항·향후 계획 설명 현장 브리핑... 문화관광산업 발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온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이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은 천장재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시공돼 있었으며, 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석면 해체 및 폐기물처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야구장 철거에 착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경제 성장과 대변혁을 이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을 위한 첫걸음인 야구장 철거 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현장 브리핑을 12일 가졌다.

야구장 철거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MICE산업 집적단지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국비 200억 원 등 총 사업비 336억 원이 투입돼 이 자리에 들어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한국문화원형의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문화브랜드의 창출과 확산을 도모하게 될 문화거점 공간으로, 올 연말부터 오는 2026년까지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시립미술 건립을 위해 건축기획 용역과 미술관 건립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친 상태로, 상반기 중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철거된 야구장과 종합경기장을 대신해 오는 2025년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총 9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만5000㎡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 규모의 야구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당초 계획보다 전시컨텐츠센터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MICE 산업 집적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롯데쇼핑 실무진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야구장 철거가 본격화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경제 성장과 대변혁을 이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을 위한 첫걸음인 야구장 철거 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현장 브리핑을 12일 가졌다.

종합경기장 부지를 MICE 산업 집적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롯데쇼핑 실무진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야구장 철거가 본격화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야구장 철거공사를 통해 종합경기장 개발에 새로운 훈풍이 불고, 더 나아가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주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 노인·아동 대상 찾아가는 수질검사

### 전주시, 수돗물 무료 검사 실시

전주시는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장병호)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수돗물 음용에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역 경로당 649곳과 유치원 116곳, 지역아동센터 70곳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수질검사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이뤄지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인 1조로 기관을 방문해 1차로 잔류염소측정기를 이용해 수돗물 염소농도를 측정하고 현장에서 결과를 안내한다. 또 2차로 일반 세균과 철, 망간 등 10개 세부 항목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상하수도본부 실험실(먹는물 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들은 또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

게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수돗물의 중요성, 음용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시는 실험실에서 세부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수질검사 성적서를 각 기관에 알려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수질 이상 발생 시 개선점과 공급증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료 채수 방법과 기본적인 수질검사 항목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병호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노인과 아동 관련 시설을 중점대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와 음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수돗물과 친숙해져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탄소중립·기후환경 예산 지원 건의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에게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관련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우 시장은 12일 전주를 방문한 기획재정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과 정희철 기후환경예산과장 등과 탄소중립 및 환경 관련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예산과는 환경분야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의 예산을 종합·조정하는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구축 재정지원 확대, 공공부문 탄소중립지원사업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대

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또 전주시가 추진중인 팔복동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자연생태관 공공건물 탄소중립 모델 사업, 덕진구정사 탄소중립지원사업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수소차와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앞장서고, 탄소중립을 위하여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확산 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특수시책 'Clean 감지기 서비스'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평화동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Clean! 감(감지기를) 지(지키는) 기(기본)' 서비스를 12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작년동안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대상을 선정해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진행과 감지기 클린서비스를 통해 화재재경보를 저감하도록 추진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건축물 내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확인 △감지기의 먼지·습기를 제거하는 클린 서비스 △실내 냉·난방 등 환경분석 △감지기 기본관리 교육 △비화재보 시 대응요령 안내 등을 진행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태 기자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 전주시, 올해부터 안전한 음식 섭취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부터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전주시는 소비자가 유통기한 식품의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표시제도로,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한다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기한을 말한다.

기존 유통기한은 식품의 맛·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했으며, 소

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두부의 소비기한은 6일 늘어난 23일이며, 유통기한이 38일인 햄의 소비기한은 19일 늘어난 57일이고, 발효유류의 경우 18일의 유통기한에서 32일의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다.

단, 냉장 보관 제품인 우유는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만큼 냉장유통 환경 등을 개선한 후 오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기한 제도는 올해 제도기간이 운영돼 날짜 표시가 유통기한과 소비

기한 모두 표시되며, 이에 따라 판매된 식품의 날짜 표시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를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기한의 경우 식품별 보관 방법을 따랐을 경우를 전제로 한 만큼 보관 방법을 잘 지켜야 하고, 가급적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되면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추가 구매, 폐기 비용을 줄이는 등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으로 식품의 폐기가 감소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역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식품의 모든 날짜 표시의 기한을 확인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아영 기자

# 전주시설공단, 22~23일 실외 체육시설 무료 개방

전주시설공단은 오는 22~23일 전주 시민 위해 도심속 7개 시설장인 실외 체육시설 무료 개방 계획을 세웠다.

공단은 이번 명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가족과 친지, 친구와 함께 체육 활동을 통해 연휴동안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취지에서 준비했다.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품목을 살펴보면, 월드컵경기장(풋살)과 종합경기장(육상), 덕진체육공원(축구, 풋살, 족구, 테니스), 완산생활체육공원(축구, 풋살, 족구, 테니스, 정구), 아

중체육공원(축구, 풋살, 족구), 고덕생 활축구장(축구), 순내생활축구장(풋살, 족구, 게이트볼)이다.


개방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각 시설당 최대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고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예약 신청을 받은 예정이며 예약경합 시 추첨을 통해 예약 결과는 20일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종합경기장 육상 트랙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가능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